

C군의 B급 잡설, 영단어 어원탐구 Chapter - 3

안녕하십니까? C군의 영단어 어원탐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겨우 세 번째 연재인데 벌써부터 만만치가 않습니다. 솔직히, 처음 ‘영단어 어원탐구’ 시리즈를 기획했을 때는 조금은 쉽게 가보려는 알팍한 생각이 적잖이 깔려있었습니다. 7~8개 정도의 단어를 선정한 후에 인터넷으로 어원조사를 하면 무엇을 쓸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필요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오래도록 연재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이 또한 C군의 선부는 생각이었습니다. 단어를 정한 이후에 원고를 쓰는 것에 관한 문제는 비교적 간단했지만, 단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막한 고민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7~8개의 단어들을 들쭉날쭉 나열하여 어원풀이를 하면 자세히 읽어보지 않아도 단박에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B급 수준의 능력으로 그저 무탈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C군이지만, 그렇다고 양심까지 B급일 수는 없습니다. 잘 쓴 글은 아니더라도 성의는 있는 글을 독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의식 있는(?) B급을 표방하는 C군입니다. 의식 있는 B급으로 살아가기 위한 작은 실천으로써 대단할 것 없는 내용이지만 진지하게 장고를 거듭하여 선정한 단어들로 B급 어원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점점 삶이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에 힘들어하고 뉴스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맥이 풀리는 시절이 오면 항상 사람은 나름의 ‘철학(Philosophy)’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여긴 어디인가?

Philosophy

어원 : phil- (loving) + sophia (wisdom)

Philosophy를 꺼내기 위한 전제가 너무 진부하고 작위적이었나요? 최대한 물 흐르듯 가고 싶었지만 달리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전제였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Philosophy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사랑을 뜻하는 ‘phil-’과 유래가 불분명하지만 지혜를 뜻하는 sophia가 합쳐진 말입니다. 단어가 내포한 의미에 관한 느낌이 뻑(!) 오시죠? Philosophy의 어원이 내포하는 의미는 ‘지혜를 사랑하는 것’ 정도가 됩니다. 이 Philosophy의 어원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많은 독자들께서 이미 알고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다시 새겨보아도 참 멋진 말 같습니다. Philosophy... 지혜를 사랑하는 것... 멋지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사랑’의 의미를 가진 ‘phil-’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영단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어원을 설명할 때 ‘phil-’ 또는 ‘-oid’ 등에서 ‘-’ 표시는 주로 앞뒤의 무언가와 결합하는 어원이라는 의미이니 혼동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Philanthropy

어원 : phil- (loving) + anthropos (human being)

Philanthropy(박애, 자선 등의 뜻)... 매우 고급져보이는 단어입니다. '타임' 같은 시사주간지 정도에나 나올 법한 단어이고 외우기도 까다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C군의 '영단어 어원탐구'와 함께라면 이제 쉽게 외울 수 있는 단어입니다. Philanthropy의 어원을 이루는 'phil-'과 'anthropos' 중에서 'phil-'은 앞서 설명되었듯이 그리스어에서 유래했고 '사랑'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anthropos'는 '인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Philanthropy는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박애', '자선', 또는 그에 관련된 것들에 관한 Philanthropy의 뜻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Philanthropist 또는 Philanthrope 등의 단어가 있는데, 둘 다 박애주의자나 자선가 등을 뜻합니다. Philanthropist는 '-ist'라는 사람을 뜻하는 어미로부터 쉽게 박애주의자라는 뜻을 연상할 수 있지만 Philanthrope는 약간 낯섭니다. 하지만 둘 다 같은 뜻의 단어이므로 Philanthrope = Philanthropist의 등식만 외우고 계시면 '박애주의자'라는 단어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Philanthropy, Philanthropist, Philanthrope에서 anthropos가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는 C군이 금방 친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외화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인류학'이라는 학문이 뭔가 신비로운 학문으로 멋지게 그려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남자 주인공의 전공이 '인류학'이라는 설정 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인류학'을 영어로 Anthropology라고 합니다. 정말 어원과 단어의 뜻이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Anthropology에서 'anthropos'는 앞서의 설명과 같이 '인간'입니다. 어미의 -logy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하여 학문이나 이론, 사상 등을 나타냅니다. Anthropology는 어원과 같이 '인간에 관한 학문', 그래서 '인류학'입니다.

Anthropology

어원 : anthropos (human being) + -logy (theory, etc.)

그런데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웬지 Anthropos와 로봇을 뜻하는 Android가 닮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두 단어 모두 뿌리가 같은 것 같습니다. C군이 언어와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라서 100%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심스럽지만 그리스어로 인간을 뜻하는 Anthropos는 같은 그리스어 계열의 '남성'을 뜻하는 'Andro-'와 뿌리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두 단어의 앞부분 발음도 비슷하므로 뭔가 연결이 있다는 심증이 강하게 듭니다. 이쯤에서 B급 연재답게 연결이 있다고 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성'을 뜻하는 'andro-'와 '모양'을 뜻하는 '-oid'가 결합한 것이 바로 '사람 모양의 로봇'을 칭하는 Android입니다. 왜 남성을 기준으로 Android라는 말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남성도 사람이므로 '사람 모양의 로봇'을 칭하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라고 B급 연재답게 얼렁뚱땅 넘어가겠습니다.

Android

어원 : andro- (male) + -oid (shape)

그런데 '-oid'가 별로 친근하지 않아서 나중에 쉽게 잊을 것 같다고요? 걱정 마십시오. C군은 무한책임의 자세로 '-oid' 마저 친근하게 만들어 기억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몽골로이드(Mongoloid)라는 말과 친숙할 것입니다. 황인종을 이야기할 때 몽골로이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Mongoloid가 Mongol과 '-oid'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어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몽골인 모양'이며 단어의 뜻은 '몽골인종의 사람'입니다.

Mongoloid

어원 : mongol + -oid (shape)

다소 어색했던 ‘-oid’가 점점 친근해지는 느낌 아닙니까? 친근해지니 점점 탄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탄력을 받은 김에 하나 더 가겠습니다.

Anthropoid

어원 : anthropos (human being) + -oid (shape)

Anthropoid의 어원은 ‘anthropos’와 ‘-oid’입니다. 앞의 어원풀이로부터 ‘사람의 모양’이라는 뜻을 가진 것 같다는 추측이 단박에 납니다. 네, ‘사람의 모양’이 맞습니다. 그래서 Anthropoid의 뜻은 고릴라나 침팬지 등을 가리키는 ‘유인원’입니다.

철학으로 시작해서 박애주의를 거쳐 인류학과 안드로이드, 몽골로이드, 유인원 등을 숨 가쁘게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어원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갈수록 ‘진보’하는 느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은 아마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이없을 정도로 진부한 화제 전환이지만 ‘진보’를 뜻하는 Progress로 어원풀이 한 번 해보겠습니다.

Progress

어원 : pro- (forward) + gress (go)

C군의 조사활동 결과 Progress의 어원은 아마도 라틴어 계열인 것 같았습니다만, 확증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어원풀이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Progress의 뜻들은 발전이나 진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원이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Progress의 ‘Pro-’는 ‘앞’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gress’의 의미는 ‘가다’입니다. Progress의 어원은 말 ‘그대로 앞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니 발전이나 진보와 바로 연결이 되지요? 그런데 C군은 항상 한 단어의 어원풀이를 하면 같은 어원을 갖는 단어들의 어원풀이를 이어가는 패턴이 있다는 것을 독자 여러분께서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C군은 ‘gress’를 가지고 또 몇 가지 어원풀이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Digress

어원 : di- (away, apart) + gress (go)

‘본론 등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의 영어 동사로 Dig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Digress에서 ‘di-’는 ‘멀리’ 또는 ‘따로’ 정도의 의미이고 gress는 앞의 예와 같이 ‘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원 자체로의 뜻은 ‘멀리 가다’ 내지는 ‘따로 가다’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혼자 멀리 가거나 따로 가는 것의 심상이 본론에서 벗어나는 것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Progress의 어원풀이로부터 아주 쉽게 Digress라는 단어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Aggress

어원 : ag- (toward) + gress (go)

우리가 흔히 도전적이거나 호전적인 사람을 보면 ‘어그레시브’ 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용사인 어그레시브에 대응되는 동사로 Aggress라는 단어가 있는데, 뜻은 ‘공격을 하다’ 내지는 ‘싸움을 걸다’입니다. Aggress에서 ag-는 ‘뭔가를 향하다’는 의미이고 gress는 ‘가다’라는 의미이므로, Aggress는 어원으로만 놓고 보면 ‘뭔가를 향해 가는 것’의 심상이 깔려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향해 가는 것’과 공격이나 싸움이 무슨 상관일까요? 어떤 이가 누군가를 향해 갈 때 가끔씩 우리는 적대적 의도를 갖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뭔가에 다가간다는 것은 다분히 공격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Aggress → ‘뭔가를 향해 가는 것’ → 공격을 하거나 싸움을 걸다

나름 설득력 있지 않나요? C군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C군의 ‘영단어 어원풀이’는 B급 연재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100% 신뢰하지는 마시고,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친김에 ‘gress’를 가지고 어원풀이를 더 해보겠습니다.

Regress

어원 : Re- (back) + gress (go)

‘퇴행하다’ 또는 ‘퇴보하다’라는 의미로 Reg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미 지난 연재를 통해서 잘 아시듯이 ‘re-’는 ‘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Regress는 어원으로 볼 때 뒤로 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는 것이니 퇴행하거나 퇴보하는 것이 됩니다.

Transgress

어원 : Trans- (across, beyond) + gress (go)

Transgress는 ‘(법)을 어기다’ 또는 ‘(제한)을 벗어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Transgress의 ‘trans-’는 뭔가를 가로지르거나 어느 범위를 넘어서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예에서는 어느 범위를 넘어서는 것의 의미로 이해하여 Transgress의 어원을 ‘어느 범위 따위를 넘어서서 가다’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정해진 범위나 제한을 넘어서 가는 것’이니 법을 어기거나 제한을 벗어나는 것과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까? 지금 딱히 어원풀이와 단어의 뜻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독자분께서는 계속 곱씹다 보면 의미가 와 닿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수도 있으니 계속 음미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다음 호는 KOBA 특집 관계로 쉬고 두 달 후에 더욱 재미진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P.S. C군의 잡설은 귀동냥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주세요. ☹